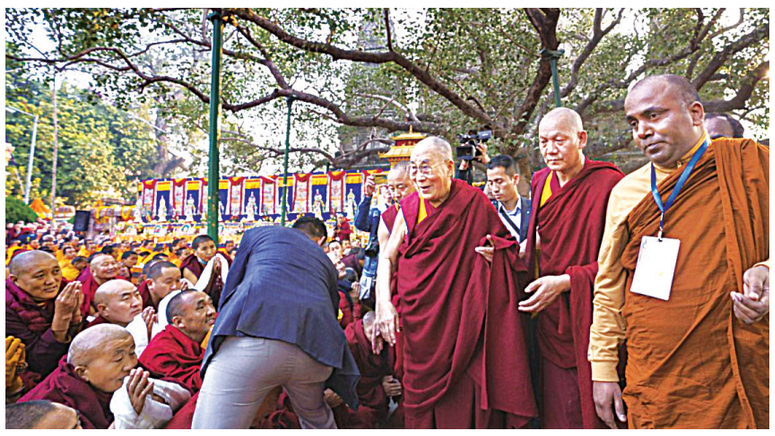
달라이라마, 3년 만에 보드가야 방문

12월 25일, 마하보디 사원에서
세계평화 기원 기도법회 봉행
한 달 체류…보리심석로 법문
노선 부활로 경제 활성화 기대

박영빈 객원기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악영향으로 전 세계가 불안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해외 불교신자들이 달라이라마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위해 12월 25일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 도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인도의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는 오는 25일 부다가야를 방문하는 동안 달라이라마에 대한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이번 달라이라마의 방문은 많은 티베트인들과 해외 불교신자들, 부다가야 지역 정부의 요청 등이 중첩되어 성사됐다. 달라이라마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보드가야에 도착할 예정이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마하보디 사원의 대탑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봉행할 예정이다.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달라이라마는 12월 29일부터 3일간



2019년 보드가야를 방문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대중들에게 용수보살의 〈보리심석론〉을 법문하고 허가관정을 수여한다. 1월 1일에는 티베트인들의 요청으로 달라이라마의 장수를 기원하는 법회가 봉행된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약 한 달가량 부다가야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마하보디 사원의 총책임을 맞고 있는 스리랑카의 찰린다 스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달라이라마는 이 성지를 방문한 수만 명의 불교도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도록 이끌 것"이라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평화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보드가야에 산재한 52곳의 국제 불교사찰들에 상주하고 방문하는 승려 수천 명과 수많은 재가순례자들이 달라이라마의 대중법문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드가야에 다시금 활기가 가득할 것을 기대했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부다가야 방문은 단지 세계평화 기원뿐만 아니라 불교성지가 밀집한 부다가야 인근과 인도 비하르주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한다는 전망이다. 부다가야의 지역상인들은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폐쇄됐던 가게와 시장들을 보수하고 있다.

부다가야 중심부 식당을 운영하는 데브 쿠마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순례자들이 끊기면서 우리는 모든 사업을 잃었다"면서 "다시금 관광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순례자들이 되돌아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달라이라마 방문으로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전이었던 2019년의 경우 전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부다가야를 찾은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현재 인도정부는 세계은행의 자금으로 부다가야와 인근 성지를 하나로 묶는 순례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낙후됐던 불교성지들의 개보수는 물론 지역사회에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부다가야의 입구를 맡았던 부다가야 국제공항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 국제노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전세기인 국제선 5~6편이 순례자들을 싣고 매일 보드가야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의 체류가 확정되면서 정기노선이 부활할 수 있다"고 기대를 비쳤다.

日, 단풍명소 사찰서 단풍 벌채한 범인 체포

인근 유명 일식집 직원 소행
사찰측 유감 표명…법적 조치



꺾여진 채 발견된 단풍 나무 가지들.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 교토에 최초로 세워진 선종사찰이자 단풍명소로 유명한 켄닌지(建仁寺)에서 단풍이 무단 벌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인인 2인조 남성은 유명 일식집 직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일본의 'NHK 뉴스' 는 켄닌지의 피해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13세기에 교토에 최초로 세워진 선종사찰인 켄닌지는 일본 선종과 다도 문화의 보고로 알려진 사찰이다. 넓은 부지에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가 장관을 이뤄 매년 가을 수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사찰에서 무단으로 단풍이 벌채하던 2인조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켄닌지 측은 지난 11 월 18일 오후 10시 반경 하얀색 쓰레기 봉투를 가진 남성 2 인조가 계속해서 절을 배회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사찰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봉투를 빼앗았다"고 전했다. 압수한 봉투 안에서는 단풍나무 가지가 수백 개 꺾인 채 들어 있었다. 사찰 측은 방범 카메라를 확인, 남성들이 경내의 단풍나무의 가까이에 설치된 울타리를 발판삼아 단풍가지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모습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범인인 남성들은 교토시내 음식점 직원이라고 자백하며 요리장식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사찰 측은 "이전에도 같은 가게 종업원을 자칭하는 다른 남성이 경내에서도 단풍을 꺾으려던 것을 스님들이 주의를 주고 돌려보낸 적 있다. 해당 가게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 '미슐랭 가이드' 에서 2성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급 일본 요리점"이라고 전했다.

해당 가게 측은 남성들이 가게의 직원임을 시인하면서도, 가게의 방침이 아닌 직원들의 단독 소행이라고 말했다. 겐닌지 내무부장 아사노 슌도 스님은 "절의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모두 참배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소중한 생명이다. 이러한 나무를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무단으로 잘라 버리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베트남 승가, 불교도에게 국가 협력 촉구

유일 국가 승인 불교단체 VBS
11월 28~29일 불교대회 개최
국가통합 · 환경보호 대응 강조



지난 11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VBS 전국불교대회. 사진출처=UCA 뉴스

사회주의 정부인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국가승인을 받은 불교단체인 베트남 불교 승가(VBS)는 최근 열린 전국 불교대회에서 베트남과 불교 모두를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2월 1일 'UCA 뉴스' 등의 외신은 베트남 불교계와 정부의 협력체계에 대해 보도했다. VBS는 1981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베트남 정부가 유일하게 공인한 불교협회다. VBS는 국제적으로 베트남 불교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VBS는 지난 11월 28~29일 수도 하노이에서 제9차 전국 불교대회를 개최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는 베트남 전국 63개 도시와 지방 및 해외 베트남 공동체에서 1000명 이상의 사부대중과 각계 협력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 행사에는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과 정부기관의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베트남의 모든 종교활동을 통제하는 종교사무위원회의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 VBS 집행위원회 의장인 틱 티엔 논 스님은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고 규율, 책임, 연대,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국민의 마음속에 VBS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대회에 참석한 팜민찐 총리 역시 "불교는 베트남의 국가건설과 국방의 대의에 큰 공헌을 해왔다. 지금과 같이 공산당 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이행하면서 베트남의 훌륭한 전통을 지키는데 불교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베트남 국내에서 불교가 1만 8500개 이상의 시설, 약 5만 5000명의 승려와 비구니와 14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베트남 주요종교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VBS는 전체 인구의 거의 60%에 해당하는 약 6000만 명이 불교신자라고 발표했다.

대회 말미에 VBS는 공식성명에서 "모든 출재가의 사부대중들은 국가와 국민, 또 우리의 종교인 불교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애국 프로그램과 불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틱 티엔 논 스님은 성명을 낭독하며 "베트남 불교도들은 국가의 통합을 촉진하고 베트남의 환경보호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베트남 고유의 특성과 전통가치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5년간 VBS를 이끌 네 번째 지도자로 올해 세납 82세의 틱 찌꽝 스님을 선출했다. 틱찌꽝 스님은 베트남 불교연구소장으로 베트남에서 존경하는 선지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국내외 불교단체의 스님들의 법계 품수가 논의 됐다. 이번 대회를 통해 268명의 비구 대종사와 391명의 비구니 대종사, 1102명과 1581명의 비구 비구니 종사가 법계를 품수하게 됐다.

또한 대회를 통해 VBS는 단체 헌장을 정부의 법률과 종교규정 및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수정된 헌장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종교사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사찰 절도 잇따라 발생

불자 행세 접근…스님 폭행
절도 빈번하자 FBI 협력도



스님이 강도를 제지하자 집단 폭행을 가하는 강도들. 사진출처=왓 라오 사원 cctv캡쳐

지난 12월 3일 미국 '폭스 뉴스' 는 텍사스 주와 테네시 주에서 발생한 사찰 절도 및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11월 20일 텍사스 주의 화이트 세틀먼트에 위치한 왓 부사야드 함바나람 사원에서 불자행세를 한 강도단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훔친 밴을 타고 사원에 침입한 9명의 용의자들은 스님에게 투병 중인 형제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스님이 기도를 시작하자 일부 용의자들은 사찰을 뒤져 3만 8천 달러(한화 약 5천만 원)를 훔쳐 달아났다.

크리스 쿡 경찰서장은 "용의자들은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한 팀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한 팀은 현금을 훔쳤다"고 설명하고 "텍사스에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절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FBI와 협력 수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른 주에서도 사찰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테네시 주 중부 내슈빌 올드 히코리 대로에 있는 왓 라오 사원에서도 불자행세를 한 강도단에 의해 절도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용의자 5명을 찾고 있다.

11월 23일 오전 9시경 스님이 문을 열자 강도 5명이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에 따르면 2명의 여성이 스님을 바닥에 눕혀 제압 및 폭행을 가하고 다른 2명의 여성은 절을 뒤지며 현금을 챙겼다. 스님이 한 여성의 가방을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강도단은 스님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남성 용의자는 자물쇠로 스님의 머리를 강타했으며 여성 용의자들은 스님을 폭행하고 옷을 찢었다. 여성은 스님의 손에서 벗어나자 황급히 차를 타고 도주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